한국의료윤리학회지 제14권 제1호(통권 제29호) : 45-54 ⓒ한국의료윤리학회, 2011년 3월
Korean J Med Ethics 14(1) : 45-54 ⓒ The Korean Society for Medical Ethics, March 2011
ISSN 2005-8284

원고투고일: 2010년 12월 1일, 심사완료일: 2011년 3월 10일

치의학교육기관의 연구윤리교육 현황*

정진희**, 박희경***, 배광학**, 진보형**

I. 서론

연구윤리 부정행위에 대한 문제의식과 각 학문 활동 영역에서 연구윤리의 중요성이 확산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황우석 교수를 포함하여 일부 연구자의 연구 진실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연구윤리 위반 사건이 속출하면서 지금까지 연구윤리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2005년에 생명공학연구자대상 조사 결과, 세계적인 의료윤리 선언인 헬싱키 선언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연구자가 46%이었고, 들어본 적은 있으나 그 내용을 잘 모른다는 연구자가 39%에 달하였다고 보고된 바 있다.[1] 손화철(2007)이 우리나라 대학의 연구윤리교육 실태를 분석한 결과, 연구윤리 관련 교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대학교가 약 43.2%이었고, 개설된 연구윤리 관련 교과목 중에서도 연구윤리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2] 2008년 국내 연구윤리 활동 실태조사[3] 분석 결과, 연구윤리 관련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대학은 2006년 3.7%에서 2008년 43.4%로 40% 정도 증가했지만,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고, 학회 차원의 교육도 2006년 7.5%에서 2008년 21.9%로 2006년에 비해 14.4% 증가 했지만 연구윤리 관련 교육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맹광호(2003)는 2003년에 우리나라 전국 41개 의과대학의 의료윤리교육 실태를 조사하여, 37개 대학(90.2%)이 의료윤리를 독립된 단독 정규교과목으로 다루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4] 하지만 우리나라 의료계에서 대부분 다루고 있는 의료윤리교육은 주로 '윤리개념'이나 '의료윤리원칙' 등에만 치중하

* 이 과제는 2009 연구윤리활동지원사업(과제번호: 2009-A08-E00003)의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본 논문은 2010년도 대한구강보건학회 종합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음.
교신저자: 진보형.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예방치학교실. 02-740-8783. jjbh@snu.ac.kr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예방치학교실,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구강내과진단학교실

1) 동아일보. 2005년 11월 25일자 보도자료.
2) 손화철. 한국대학의 연구윤리교육 실태 분석. 철학사상 2007 ; 24 : 143-183.
3) 이인재, 손경원, 이민주, 이동훈. 2008년 국내 연구윤리 활동 실태조사 · 분석(정책연구-2008-윤리보고서). 한국학술진흥재단, 2008 : 193.
4) 맹광호. 한국의과대학에서의 의료윤리교육현황분석. 의료 · 윤리 · 교육 2003 ; 6(1).

고 있고 의사와 환자 관계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문제를 많이 다루는 사례 중심적 교육이 필요함을 제언하고 있다. 치학계 교육에서도 윤리교육의 필요성은 고조되고 있는데, 김윤정 등(2003)의 연구에서 우리나라 치과의사들의 대부분이 의료윤리를 정규교육으로 받은 적이 없으며, 치과의사가 된 뒤에도 이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매우 드문 것으로 조사되었다.[5)]

국외 연구윤리 관련 교육실태를 살펴보면, 미국은 정부와 대학에서 연구윤리에 대한 교육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연구윤리국(ORI)를 설치하여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각 대학에서는 '책임 있는 연구실천'이라는 전체적인 틀에서 연구부정행위의 단순한 예방뿐 아니라, 연구의 사전 준비, 수행 및 발표, 바람직한 연구문화의 정착 등 포괄적으로 책임있는 연구실천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연구윤리에 관련된 다양한 법규가 있어서 연구윤리 관련 문제에 대한 법적 준수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영국에서는 법규보다는 유연한 지침과 강령으로 연구윤리교육 및 실천, 그리고 연구윤리 준수에 대한 감독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또한 연구윤리의 표준을 정부기구나 정부에서 의뢰한 위원회의 지침이나 보고서의 형태로 제시하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이런 기본 골격으로 각자의 실정에 맞게 연구윤리 정책과 체계를 수립하여 교육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중심이 되어 연구윤리 확립 및 진실성 검증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연구윤리 확산을 위한 교육 ·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현재 연구윤리가 도덕적 비난이나 사회적 물의를 피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인식과 함께 연구윤리는 상당히 뒤처져 있는 상황이다. 올바른 연구윤리 문화의 정착을 위해 연구자의 연구윤리 마인드 형성뿐만 아니라 부정행위를 처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꾸준히 구축할 필요성이 있으며, 연구윤리교육을 위한 표준적이고 모범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연구윤리교육과정을 국내 대학뿐만 아니라 국내 각 연구기관에서 학문분야별 상황에 맞게 좋은 제도와 방침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와 정책을 채택하고 실천하며 교육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파악이 필요하다. 이번 연구는 치의학 연구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자의 연구윤리에 대한 올바른 가치 확립을 위한 연구윤리 지침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치의학 교육기관의 연구윤리교육 현황을 파악하여, 치의학 연구윤리의 개념 정립과 연구윤리교육 교재 개발에 기여하고, 치의학 윤리교육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II.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전국 11개 치의학 교육기관에서 실제 윤리과목을 강의한 경험이 있거나, 이와 관련된 전공 교수 11명을 대상으로 현재 소속 기관에서 실시되고 있는 윤리교육 현황을 수집하였다. 조사는 2회에 걸쳐 수행하였고, 조사과정은 각 제안사항에 대한 동의의 정도와 실현 가능성을 응답하는 1차 조사와 1차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응답을 조정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2차 조사로 구성되었다. 실제 델파이 조사연구에는 연구진이 소속된 기관을 제외한 10개 치의학 교육기관의 전공교수 10명을 대상으로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5) 김윤정, 유미선, 김수남. 현의료계의 윤리적 문제에 대한 일부 치과대학 학생들의 의식조사. 의료 · 윤리 · 교육 2003 ; 6(1).

〈표 1〉 치의학 연구윤리교육을 위한 제안사항

제안 1	치의학 연구윤리교육이 학부과정이나 대학원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제안 2	소속 기관에서는 교수 및 연구자를 위한 연구윤리교육을 필수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안 3	치의학 연구윤리교육을 위해 강의뿐 아니라 실습교육 프로그램도 수행되어져야 한다.
제안 4	치의학 연구윤리교육을 위한 교수 요원 양성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제안 5	치의학 연구윤리교육을 위한 전문가 집단이 구성되어야 한다.
제안 6	치의학 연구윤리교육을 위한 연구 사례가 수집되어야 한다.
제안 7	치의학 연구윤리교육을 위한 교재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조사도구와 방법

본 연구는 델파이 연구 조사법을 활용하였는데, 연구진 회의를 통해 〈표 1〉과 같은 7가지의 제안사항을 결정하였다. 1차 조사는 치의학 연구윤리교육 현황과 치의학 연구윤리교육을 위한 제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전문가 패널들에게 구조화된 설문지를 제공하여 구하였다. 제안 사항에 대해 '매우 동의'부터 '매우 동의 않음' 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동의 정도를 조사하였고, '매우 높음' 부터 '매우 낮음' 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우선순위(시급성)를 조사하였다. 2차 설문은 1차 델파이 조사 결과에 준하여 응답의 최빈값과 본인 응답을 제시하여 본인의 의견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최빈값이 아닌 응답을 한 경우에는 개방형 응답란에 기타 의견을 기입하게 하였다. 1차 조사는 2010년 6월 23일부터 30일에 걸쳐 실시하였고, 2차 조사는 2010년 7월 12부터 19일에 걸쳐 E-mail을 통해 조사하였다.

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version 15.0 (Chicago,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차 조사에서는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의 집중 경향(중앙값)을 분석하였고, 2차 조사에서는 각 문항에 대한 전문가 패널의 의견 정도를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치의학 교육기관의 연구윤리교육 현황

〈표 2〉와 같이 현재 전국 11개 치의학 교육기관에서 치의학 연구윤리교육을 운영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4%이었고, 소속기관에서 교수 및 연구자를 위한 연구윤리교육 운영은 약 46%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치의학 연구윤리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구성원들의 공감 여부를 조사한 결과, 91%가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과 같이, 치의학 교육과정에서 윤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한 교육기관의 연구윤리 관련 강좌 정보를 살펴보면, 주로 치과의료윤리 및 직업윤리 위주로 교육하고 있는 경향이 강하였다. 치의학 연구윤리 측면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은 극히 일부로 나타났으며, 그 강의시간도 별로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 현재 교육기관의 연구윤리교육 운영 현황

내용	응답률			
	그렇다		그렇지 않다	
	수	%	수	%
치의학 연구윤리교육 운영 여부	7	63.6	4	36.4
소속기관에서 교수 및 연구자를 위한 연구윤리 교육 운영 여부	5	45.5	6	54.5
치의학 연구윤리교육의 필요성	10	90.9	1	9.1

〈표 3〉 과정별 교육기관의 연구윤리교육 실제 내용

구분	학교(학년)	강좌명	강의시간
학 부 *	A (4)	사회치과윤리	8시간
	B (3)	치과의료윤리	1시간
	C (1)	치의학윤리	2시간
	D (3)	치과의료윤리	16시간
	E (1-3)	사회치의학강의 일부	-
	F (3)	의료법과 윤리	15시간
전문대학원 +	G (1, 4)	논문특강, 논문연구	강좌별 1시간
	H (1-4)	인문사회교육과정 일부로 진행	학기 당 1시간
학술대학원 §	I (석박사과정)	치의학 연구윤리	3시간씩 13주

* : 치과대학, +: 치의학전문대학원, § : 일반대학원 치의학과

2. 전문가집단 대상 델파이 조사결과

1) 1차 델파이 조사결과

a. 치의학 연구윤리교육을 위한 제안사항에 대한 동의 정도

1차 델파이 조사결과, 치의학 연구윤리교육을 위한 제안사항에 대한 동의 정도는 〈표 4〉와 같이 7가지 제안 사항에 대해 대다수가 '동의' 또는 '매우 동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

b. 치의학 연구윤리교육을 위한 제안사항에 대한 우선 순위(시급성)

치의학 연구윤리교육을 위한 제안사항에 대한

〈표 4〉 치의학 연구윤리교육을 위한 제안사항의 동의 정도(1차 델파이 조사결과)

	항목	응답의 최빈값	백분율(%)
제안 1	치의학 연구윤리교육이 학부과정이나 대학원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매우 동의	60
제안 2	소속 기관에서는 교수 및 연구자를 위한 연구윤리교육을 필수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매우 동의	90
제안 3	치의학 연구윤리교육을 위해 강의 뿐 아니라 실습교육 프로그램도 수행되어져야 한다.	동의	70
제안 4	치의학 연구윤리교육을 위한 교수 요원 양성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동의	50
제안 5	치의학 연구윤리교육을 위한 전문가 집단이 구성되어야 한다.	동의	70
제안 6	치의학 연구윤리교육을 위한 연구 사례가 수집되어야 한다.	동의	90
제안 7	치의학 연구윤리교육을 위한 교재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동의	50

우선순위(시급성) 정도는 〈표 5〉와 같이 제안 3을 제외한 항목에 대해 다수의 의견이 우선순위가 높거나 매우 높다고 응답하였고, 제안 3의 경우 대다수가 보통의 우선순위라고 응답하였다.

〈표 5〉 치의학 연구윤리교육을 위한 제안사항의 우선순위(시급성) (1차 델파이 조사결과)

	항목	응답의 최빈값	백분율(%)
제안 1	치의학 연구윤리교육이 학부과정이나 대학원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높음	40
제안 2	소속 기관에서는 교수 및 연구자를 위한 연구윤리교육을 필수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매우 높음	60
제안 3	치의학 연구윤리교육을 위해 강의뿐 아니라 실습교육 프로그램도 수행되어져야 한다.	보통	60
제안 4	치의학 연구윤리교육을 위한 교수 요원 양성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높음	40
제안 5	치의학 연구윤리교육을 위한 전문가 집단이 구성되어야 한다.	높음	70
제안 6	치의학 연구윤리교육을 위한 연구 사례가 수집되어야 한다.	높음	60
제안 7	치의학 연구윤리교육을 위한 교재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매우 높음 높음	40 40

2) 1차 응답을 기초로 한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a. 치의학 연구윤리교육을 위한 제안사항에 대한 동의 정도

i) 치의학 연구윤리교육을 위한 제안사항에 대한 동의 정도는, '치의학 연구윤리교육이 학부과정이나 대학원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제안에 7명은 '매우 동의', 3명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에 동의한다", "연구자 양성과정이 아닌 치과의사 양성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제한된 내용만으로도 충분하다", "대학원에서는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학부과정은 개개 연구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동의로 응답하였다.

ii) '소속기관에서는 교수 및 연구자를 위한 연구윤리교육을 필수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는 제안에는 10명 모두 '매우 동의한다'로 응답하였다.

iii) 치의학 연구윤리교육을 위해 강의뿐 아니라 실습교육 프로그램도 수행되어져야 한다는 제안에는 8명이 동의하였고, 나머지 응답자 중 1명은 "실습교육 프로그램의 추가로 효과의 차이를 기대하기 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실습보다는 교육의 중요성 인식이나 관습으로 정립될 필요성이 크다고 본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판단보류로 응답하였고, 나머지 1명은 "개개연구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도제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동의 않음'으로 응답하였다.

iv) 치의학 연구윤리교육을 위한 교수요원양성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제안에는 6명이 동의하였고, 3명은 "치의학연구윤리 및 진료윤리를 전담할 교수요원양성이 시급하다", "교수가 양성되어야만 학생들을 교육시킬 수 있다", "교육을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합한 양성프로그램개발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매우 동의함'에 응답하였고, 1명은 "관련내용의 연수로 충분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동의 않음'에 응답하였다.

v) 치의학 연구윤리교육을 위한 전문가 집단이 구성되어야 한다는 제안에는 10명 '모두 동의한다'로 응답하였다.

vi) 치의학 연구윤리교육을 위한 연구사례가 수집되어야 한다는 제안에는 9명이 '동의'하였고, 나머지 1명은 "사례를 통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매우 동의함'에 응답하였다.

vii) 치의학 연구윤리교육을 위한 교재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제안에는 5명이 '동의'하였고, 4명이 '매우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나머지 1명은 "교재가 따로 있어서 해될 것은 없지만 최고의 교재는 우리의 관행에 대한 검토와 반성이기 때문에 꼭 따로 개발될 필요는 없다고 본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판단유보로 응답하였다.

b. 치의학 연구윤리교육을 위한 제안사항에 대한 우선순위(시급성) 및 응답 이유

i) 치의학 연구윤리교육을 위한 제안사항에 대한 우선순위(시급성) 정도는, 치의학 연구윤리교육이 학부과정이나 대학원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제안의 우선순위(시급성)에 대한 응답으로는 7명이 높음, 1명이 매우 높음, 2명은 "연구윤리에 위배되는 연구가 많지 않다고 판단된다"와 "이미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으므로 시급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보통'으로 응답하였다.

ii) 소속기관에서는 교수 및 연구자를 위한 연구윤리교육을 필수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는 제안의 우선순위(시급성)에 대한 응답으로는 7명이 매우 높음, 1명은 "교수들은 학생들과 달리, 이러한 내용을 접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학생들보다는 순위가 뒤진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높음으로 응답하였고, 2명은 "연구윤리지침이 정해져 있으면 아주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된다"와 "필요성에는 매우 동의한 현재 교수나 연구자들은 연구자로서 윤리규정을 잘 준수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보통으로 응답하였다.

iii) 치의학 연구윤리교육을 위한 교수요원양성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제안의 우선순위(시급성)에 대한 응답으로는 7명이 보통으로 응답하였고 2명은 "강의로 이루어진 교육 후 그 성과를 바탕으로 후속검토가 필요하다"와 "실습교육에 대한 개념과 내용이 머릿속에 구체적으로 떠오르지 않아 시급성을 판단하기 어려워서 낮음으로 판단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낮음으로 응답하였으며 나머지 1명은 "연구윤리의 실습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전무한 지식으로서 판단이 유보되는 사항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며 높음으로 응답하였다.

iv) 치의학 연구윤리교육을 위한 교수요원양성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제안의 우선순위(시급성)에 대한 응답으로는 7명이 높음으로 2명은 "일반적인 의료윤리 또는 치의학 윤리 전공자가 강의가 가능하며, 치의학 연구윤리만 위한 교수요원 양성은 그리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낮음으로 응답하였고, 나머지 1명은 "교수를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합한 양성프로그램의 개발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매우 높음으로 응답하였다.

v) 치의학 연구윤리교육을 위한 전문가 집단이 구성되어야 한다는 제안의 우선순위(시급성)에 대한 응답으로는 10명이 모두 높음으로 응답하였다.

vi) 치의학 연구윤리교육을 위한 연구사례가 수집되어야 한다는 제안의 우선순위(시급성)에 대한 응답으로는 8명이 높음, 1명은 "사례가 수집되면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이다. 그러나 교육이 시작되고 나서도 수집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보통으로 응답하였고, 나머지 1명은 "어떤 부분의 연구사례인지를 판단하기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낮음으로 응답하였다.

vii) 치의학 연구윤리교육을 위한 교재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제안의 우선순위(시급성)에 대한 응답으로는 5명이 높음, 3명은 "교재가 있어야 교육이 가능해진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매우 높음으로 응답하였고, 2명은 "우리의 관행에 대한 검토와 반성이 우선이지 교육을 위한 교재개발이 시급하지는 않다고 본다"와 "연구윤리와 의료윤리의 구분이 필요하겠고, 강의시의학계열의 윤리강좌와의 차이점 등이 애매하여 추가로 치의학을 주제로 한 교재의 한계점이 있으리라 생각되므로 기존의 의학계열사용도 무관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보통으로 응답하였다.

IV. 고찰

이번 조사 결과 소속기관에서 교수 및 연구자를 위한 연구윤리교육을 필수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치의학 연구윤리교육을 위한 전문가 집단이 구성되어야 한다는 제안사항에서의 동의정도와 우선순위(시급성)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조사 대상자들이 실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과 참여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치의학 연구윤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절실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치의학 교육기관에서의 윤리교육 운영 현황 조사 결과 64%가 관련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교수나 연구자를 위한 연구윤리교육은 50%가 실시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하는 비율은 90%를 상회하였다. 이는 손화철(2007)[6]이 조사한 일반 대학교의 연구윤리 관련 교과목 개설에 관한 조사결과인 57%를 상회하는 것으로 보이나, 손의 연구에서는 실제 개설된 과목 내용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에 합당한 내용이 교수되고 있는 경우만을 연구윤리교육이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로, 연구윤리교육에서 필수적인 연구윤리 강령 및 법규, 둘째로 연구과정에서 다루어야 할 데이터 수집과 분석, 셋째로 표절 및 도용, 넷째로 피험 대상의 적절한 관리, 다섯째로 이해 관계, 여섯째로 연구결과의 출판과 저자문제 등이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표 3〉과 같이 교과목에서 다루는 내용을 상세하게 검토하지는 않았으나, 교과목명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연구윤리의 내용과는 거리가 먼 직업윤리와 일반 의료윤리교육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향후 연구윤리와 관련된 교육내용의 교과목 개설을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되었다.

강의 시간 면에서도 전체 교육과정에서 극히 일부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가장 많이 시간을 할애하는 학교가 16시간 정도로 조사되어 전체적으로 극히 소수의 시간을 통해서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구윤리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손화철은 연구윤리는 단순히 금지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의 연구 행위 자체에 녹아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는 제도적 장치와 처벌이 아닌 교육을 통해서 성취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체계적인 연구윤리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행위 자체에 녹아 있는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연구윤리 문제를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해 보고, 이를 가치 있는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리라고 생각되어지며, 충분한 시간 동안 이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와 유사한 맥락으로 치의학 연구윤리교육 시행, 교수 및 연구자 대상 교육 및 교수요원 양성과 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하여 대부분이 '동의 이상'의 응답을 하였고, 이와 같은 치의학 연구윤리교육의 시급성에 대해서도 대부분이 매우 긍정적으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습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다른 항목에 대해 덜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높았다. 그러므로 연구윤리 교육을 강의할 강사진을 대상으로 하여, 이와 관련된 내용을 교육하고 연구 현장의 실제상황을 적용한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연구윤리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실제 적용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송성수(2006)[7]는 교강사용 매뉴얼을 바탕으로 연구윤리 교과 내용을 축적하고 교과서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연구윤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국내 사례들을 모으는 작업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이는 이번 조사 결과에서도 교육내용을 이끌어 갈 전문가 집단 구성에 대한 높은

6) 손화철. 앞의 글. 2007 : 143-183.
7) 송성수, 손화철. '공학윤리와 전문직 교육'에 관한 논평. 제19회 한국철학자대회보, 2006 ; 1 : 246-248.

열망과 더불어 교육을 위한 사례수집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에서도 알 수 있었다. 또한 현재 치의학 교육기관의 현황을 살펴볼 때 교수요원 양성의 필요성이 절실함을 알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 윤리학자와 공조하여 적절한 교수 요원 양성 프로그램의 개발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검토되었다. 이번 연구는 현재 11개 치의학 교육기관에서 이와 유사한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교육자들의 의견 조회를 통해 앞으로 치의학 연구윤리교육 정착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점검해 보았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현재 다른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윤리교육과 비교하여 구체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제시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향후에는 실제 치의학 교육기관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교육내용이나 다른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윤리교육 내용을 비교 검토하여, 치의학 연구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 제시 등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검토되었다.

V. 결론

치의학 교육기관의 연구윤리교육 현황을 파악하고 치의학 연구윤리교육 정착을 위해 필요한 교육자, 교육내용 및 교육 방법 등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국내 11개 치의학 교육기관의 교과목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델파이 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현재 치의학 교육기관에서는 예방치학 및 인문사회교육과정에서 주로 윤리와 관련된 과목을 개설하고 있었지만 치의학 연구윤리를 따로 강의하는 기관의 수는 드물었다.

둘째, 소속기관에서 교수 및 연구자를 위한 연구윤리교육을 필수적으로 수행하여야 하고 윤리교육을 위한 전문가 집단이 구성될 필요성에 있다는 제안사항에는 전문가 패널 모두가 동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치의학 연구윤리교육을 위한 제안사항의 우선순위 정도는 치의학 연구윤리교육을 위한 전문가 집단이 구성되어야 한다는 항목이 가장 높았고, 나머지 항목들도 우선순위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치의학 교육기관에서 일정 수준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이 연구에 참여할 기회가 증대되는 점을 감안할 때, 치의학 연구윤리를 교수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검토되며 치의학 연구윤리 개념정립을 통해 올바른 연구윤리 확산의 기틀을 마련해야 하겠다.

색인어
연구윤리, 치의학 교육기관, 교육과정

한국의료윤리학회지 제14권 제1호(통권 제29호) : 45–54 ⓒ한국의료윤리학회, 2011년 3월
Korean J Med Ethics 14(1) : 45-54 ⓒ The Korean Society for Medical Ethics, March 2011
ISSN 2005-8284

Research Ethics Education in Korean Dental Schools

Jung Jin-Hee*, Park Hee-Kyoung**, Bae Kwang-Hak*, Jin Bo-Hyoung***

Abstract

This study was designed to investigate the state of research ethics curricula in undergraduate and postgraduate programs at dental education institutions in the Republic of Korea. Educators at 11 institutions participated in the study. Applying Delphi research methods, we evaluated the key elements of the current research ethics curricula at the participating institutions and the educators' opinions concerning the necessity of dental research ethics. It was found that most of the participating dental schools focus on professional and/or medical ethics rather than research ethics in their educational programs. As such, there is a need for educational programs in the field of research ethics and the composition of a professional group for dental research ethics. We suggest that the main priority should be the development of an educational organization and special training programsin dental research ethics.

keywords

research ethics, Korean dental schools, curriculum

** Dept. of Preventive & Social Dentistry, School of Dentistry, SNU*
*** Dept. of Oral Medicine & Diagnosis, School of Dentistry, SNU*
**** Dept. of Preventive & Social Dentistry, School of Dentistry, SNU: **Corresponding Author***